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개최일시	2025. 1. 17(금) 18:00 ~ 1. 18(토) 00:3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3명)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서유리(대학원 학생회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정덕유(총무처장)		
불참자 (0명)			
안건	I.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안 심의 II.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III.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안전Ⅱ]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3.1% 인상으로 승인 [안전Ⅲ]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원안대로 승인		
내용	■ 개회 - 위원장이 지난 회의에서의 장시간 회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의의 규칙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후 11시 회의 종료시간 설정과 회의 중 휴회에 대해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회의 종료시간이 정해져서는 안 되며, 회의 종료시간을 이유로 학교에서 빠르게 의결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다. - 위원장이 동어반복적인 발언을 자제하여 논의를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자고 취지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지난 번 회의의 동어반복은 학교 측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지 학생위원 측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발언하다.		

이 2

한

2 2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회의 종료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종료시간은 강제가 아닌 목표로 설정하자는 것이며, 종료시간을 맞추기 위해 의결을 강행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 안건을 모두 다루지 않은 상태로 종료시간이 되었을 경우 추가 개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제안인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잘 진행하고 가능한 마무리하려는 것이며, 후에 속행하려는 뜻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참석한 회의이며, 빨리 끝나는 것보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충분한 답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하다. 학생들을 대변하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며, 학생들은 왜 등록금을 인상하려는지, 3.9%는 어떻게 나온 인상률인지, 적립금은 왜 쓸 수 없는지 등을 궁금해 하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하다. 종료시간을 지키기보다 몇 시간이 걸리든 논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하며, 종료시간을 정하고 싶으면 추가 개회를 약속하면 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저번 회의에서 의제에 대한 시간 배분이 잘 되지 않았다는 반성이 있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며, 가급적 오늘 논의를 다 마치자는 뜻인 것이므로 추가 개회를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한다고 하며, 첫 번째 안건이 학생요구안인데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개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학생요구안은 의결이 필요한 안건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도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오늘 회의가 11시에 안 끝날 경우 추가 개회하는 것을 지금 약속 가능한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11시 마무리를 목표로 하자는 것이며 추가 개회는 진행 과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답변하다. 11시까지 시간이 충분하므로 준비된
--	--

안건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 개회도 가능하지만 지금 정할 수는 없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회의록 확인 서명 시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의 간서명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홈페이지 게시되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기한에 맞게 게시되었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인이사회까지 진행한 후 법적 기한에 맞게 게시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참석위원 12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위원 중 대학원 학생회장은 오후 7시경 입장하여, 최종 참석인원은 13명임.

■ 회의내용

I.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요구안 심의

II.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III.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심의·의결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차 등심위를 진행하면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적절히 지키지 않았음에 강한 유감을 표현하다. 3.9% 인상안 관련 제출받은 사전자료에 인상 근거자료가 없으며, 예산팀장과 유선 연락 시 회의시간에 논의하자고 하였는데 근거자료가 없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발

언하다. 또한 회의 2~3일 전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기로 하였는데 2일 전 오후 늦게 자료가 도착한 점도 유감임을 밝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 교육부 면담 등 책정 논의 관련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학교 측은 본관을 폐쇄하고 학생 측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아 실망하였음에 대해 유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라며, 모든 발언이 기록되는 회의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에게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해 해설을 요청하고 싶으며, 위원장에게 학생들이 본관 밖에서 추운데 농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번 회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도 학생들의 결사·집회의 자유를 고려치 않고 통제 중인데, 학생 본관 출입 통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2차 등심위에서 학생들이 본관에 진입 후 회의장 밖에서 고성을 질러 불편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중간 휴회와 회의 종료 이후 회의장 안까지 들어와 구호를 외치고, 촬영을 하고, 위원들을 퇴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원들을 불안하고 힘들게 한 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진행함을 설명하다. 또한, 본관이 건축된지 100년 이상된 문화재 보존건물이므로 대회의실을 비롯하여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고 보존해야 하는 곳임을 설명하다. 2차 등심위의 상황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1주일 동안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위원 외에는 출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관 출입 통제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해는 하지만 압박을 받았다면 충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미봉책으로 학생 출입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본관 건물이 문화재임을 핑계로 삼지만 파손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으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등심위 시 학생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어 진입을 제제한 점은 이해를 하나, 출입 통제 안내 문구에서 문화재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어떤 취지로 기재하였는지 질의하다. 학생들이 기물을 부수거나 낙서를 하는 등의 행위 없이 회의장 밖에서 소리를 낸 정도였다고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당시 구호를 외치다 벽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었으며, 처음에는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반복적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었다고 하며, 유리로 된 시설도 있고 오래된 시설임을 상기시키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벽을 세게 치는 행동이 시설 파손을

일으킬 수 있어서 본관을 통제하는 것이냐고 다시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염려가 되어 그렇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 상태이고, 학생처와 대화를 하였을 때 오늘 피케팅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텐데 학생들에게 자제를 요청하지도 않고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위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을 연행 받는 것 같이 느꼈으니 앞으로 유의하기를 바라며, 학생들 누구도 위협이 아니라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케팅을 본관 내에서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계획이었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본관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으나 밖에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2차 등심위 상황에 대하여, 회의장 참관도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휴회와 회의 종료 이후 학생위원들이 회의장 밖 학생들과 함께 들어와 교직원위원과 외부전문가위원의 퇴실을 제지하였던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위원들은 같은 학우여서 그 상황이 괜찮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교직원위원이 교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은 행동을 하면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냐고 반문하다. 또한 위원장에게 먼저 문의를 한다던지, 11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의 회의를 했으면 최소 외부전문가위원이라도 퇴실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퇴실을 막은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당시 겪었던 상황 등에 따라 본관 통제를 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의 발언을 이해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피켓팅하는 분들의 심정도 고려하길 바라며, 추운 날씨에도 긴 시간 피케팅을 하는 것은 학교가 동결안을 제시하였다가 갑자기 인상안으로 변경하여서 그런 것임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학생들의 분노에 처장들이 위협을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과격하다는 발언만 하는 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또한 회의자료는 5일 이내 메일로 송부하는 원칙이 법에 있는데 2,3일 전 송부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여 이를 전에 송부하면서 자료 또한 부실하다고 하며, 항상 동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민주적인 회의체를 운영하고 학생위원도 학교위원만큼 존중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에 대해 느낀 것이 있으므로 학생요구안을 등심위에서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며, 요구안 관련 진행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앞서 언급한 부분들을 꼭 유념해주기를 당부하며, 학생요구안이 등록금 인상을 위한 유인책이 아닌가 하여 많은 고민을 했으나 등록금 책정과 상관없이 학생요구안을 준비했음을 상기시키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 1,641명의 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따른 학생요구안을 발표하다. 우선 등심위 구조 관련으로 등심위 참관 및 참관인 발언 허용, 등심위 위원 중 외부 전문가와 학생위원 간의 사전 면담 보장, 등심위 위원 2/3 이상 참석 시 개최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심위 회차 보장/등심위 개최일과 이사회 협의일 간 시간차 보장, 구조 등심위 정기 개최를 발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 관련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 인상 반대, 단대별 등록금 책정 기준 공개, 입학장학금 수혜기준 완화 및 입학장학금 예산 증액, 안정적 대학 재정 운영을 위한 법인 책임 촉구 - 수익 사업 다양화와 법정 부담 전입금 100% 요구, 전임교원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배치, 고시지원반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위한 예산 증액 요구, 로스쿨 준비반 신설 위한 예산 증액 요구, 잡페어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위한 예산 증액 요구, 기숙사 생활시설 개선(기숙사 누수 사고 방지, 방역 등)위한 예산 배치 요구, 셔틀버스 정차지점 추가 위한 예산 배치, 각 건물 방역 관련 예산 배치 요구, 비건학식 추진 위한 예산 배치 요구를 발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각 단대의 단위별 요구안에 대해 상세히 추가 발표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관련하여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상세히 추가 발표하다.

- 기획처장이 로스쿨 지원 확대에 관한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재검토해 볼 것을 발언하다. 또한 학생 요구안 중 가장 와닿는 것은 냉난방 시설이며 사용연한이 넘어간 시설이 많아 전체적으로 4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예산 부족으로 연 2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정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으며 그럴 경우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 에너지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장학금 추가되는 부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주로 진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생 로스쿨 준비반의 경우 법전원이 관여를 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법전원 입시의 경우 공정성을 따져야 하므로 법전원이

주관할 수 없고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한다고 답하며, 조심스럽지만 로스쿨 지원 확대는 일부 학생들에게 수혜가 집중되기 때문에 냉난방처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적절해 보인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고시반 지원 예산 규모가 조금씩 커져서 현재 3억 원 이상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시반이 학교의 명예와 평판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학생 요구안에서 매년 고시반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만 우선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는 방향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고시장려금 관련 부연 설명하다. 우선 장학금의 큰 원칙은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며, 고시 지원 장학금 지급 방안은 고시장려금과 합격장려금이 있는데 둘 모두 지급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우리 학교의 경우 고시준비반에 입실한 학생에 대하여 배정된 예산 내에서 가계곤란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여 등록금 전체 또는 일부를 고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세한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고 발언하며, 다만 학생 요구안은 동결안을 전제로 작성이 되었으며 인상안 가결로 인한 재원 확충은 전제로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로스쿨 관련하여 학교가 리트준비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대단히 큰 요구가 아닌 리트준비플러스 포스트 리트로써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면접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 예산팀장이 유관부서에 관련 사항 진행이 가능한지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유관부서가 인재개발원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 반대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부담 관련 답변하며, 우리 학교는 2025학년도에 3.9%를 인상하여도 2008학년도 등록금 대비 한 학기 학생 1인당 인상액이 23,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담임을 발언하고, 본교의 인상안은 1,2차 등심위의 학생위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타 대학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3,000원 부담 추가가 2008학년도 대비가 맞는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그러하며, 현재는 더 낮은 상태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나 우리 학교 등록금은 전국 평균보다 200만 원을 웃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하며,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은 학교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반문하다. 또한 학생처장이 우리 학교에 6,300억 원의 적립금이 있으며, 이는 2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한 점을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그 동안 학교는 10여년간 예산 집행을 축소해왔고 교직원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를 아껴 운영해왔던 것이며, 우리 학교 교수 급여는 전국 40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학교가 제한된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의 적립금 관련 학생처장의 말이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적립금이 많아 2년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님을 명백히 하다. 우리 학교의 적립금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 는 하지만 학교 연간 운영경비는 4천억 원이 넘으므로 많다고 볼 수 없으며, 적립금은 우리 세대에 사용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적립금 별로 목적이 있어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어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리 학교는 6,300억 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고, 타 대학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그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교무처장)이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예금을 예시로 들며 연간 예산과 적립금은 용도와 의미가 다를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적립금과 기금의 회계처리상 차이를 설명하며 동일한 개념임을 설명하다. 학생위원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해 적립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다. 우리 학교의 적립금은 학교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일찍이 시작하여 적립해 온 것으로 특히 1990년대 후반 높은 금리로 운용되며 규모가 커졌음을 설명하다. 이후 기업들의 자체적인 사회사업 운영 등 대학의 기부금 모금 상황이 어려워

지고, 금융환경 또한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어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과 16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속에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적립금은 현재뿐만 아니라 세대간 공평배분의 원칙하에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지금 인출하게 되면 미래의 이자까지 인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립금 인출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함을 설명하다. 또한 교육부에서 적립금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적립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 또한 해당 적립금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여 적립금 이자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어렵게 하고, 저금리 상황 속에 금융상품 투자를 장려하다가 적립금 운용으로 손실을 본 학교들이 발생함에 따라 적립금은 1/2한도 내 증권 등에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적립금 관련 다양한 지침이 있음을 설명하다. 또한 기부자의 요구, 즉 기부 목적이 곧 해당 적립금의 목적이 되어 그 목적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고, 위원들께 제공한 적립금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백 개의 특정목적기금이 각각의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대학 운영비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다. 2024학년도에 적립금으로부터 이자수익이 크게 발생했지만 이를 해당 적립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서, 결국 원금보존기금을 계속 인출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하고, 6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적립금 관련 강제되는 규정이 많아서 적시에 필요한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임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설명을 경청하였으며 학생위원 측의 의문은 교직원 급여를 줄여가며 제한된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금은 늘어나는 상황이 의문이라고 발언하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추경예산 적립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임의건축기금이 기초 대비 기말에 증가하였는데 이게 60%만 적립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재건축을 위해 기부금을 모금한 것과 감가상각비 일부를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건축기금은 연간 감가상각비만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학교는 등록금회계 재정 부족으로 비등록금회계 감가상각비만을 적립하여 감가상각비의 60% 수준만 적립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건축기금이 늘어나는데 왜 이를 활용하지 않고 계속 시설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기금 목적을 뚜렷하게 제한한다면 2011년 건축기금 500억 원과 기타기금 85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용도변경한 사례가 있으니 적시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절차가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목간 전용을 허용하지 않느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건축기금은 추경예산(안)과 당초예산(안) 보고 시 위원들께 보고한 바와 같이 매년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학관 재건축 때 대규모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생활환경관 및 헬렌관 재건축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백 개의 특정목적기금이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져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기금의 용도변경은 구성원의 합의가 진행되고 기부자 의사를 존중해야 가능한 것이며, 건축기금과 기타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변경한 2011년 대비 현재 기금 용도변경은 절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강화되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법인이사회 심의·의결까지 진행해야 함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학교 측도 노력하겠지만 목적을 변경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쓰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럴 경우 학생들도 기금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추가 재원 필요성에 대해 등록금 인상안이 나오니 기금 활용도 함께 제기하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을 등록금 인상 전에 열린 자세로 고민해 볼 것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 용도변경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과거 기부금 모금부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목적기금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기부자의 동의 없는 용도 변경은 어렵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특정목적기금은 용도 변경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며 원금 보존기금 등 일부 기금에 한하여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경영대학발전기금을 예로 들며, 기부자의 원목적이 경영대학의 발전이라면, 경영대학의 어려운 점은 많은 복수/부전공생들로 인해 주전공생의 수강신청이 어려운 것이므로 전임교원 확충에 기금을 사용하여 주전공생 분반을 확보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다.

- 예산팀장이 한 명의 전임교원을 기금을 재원으로 채용한다면 확보해야 하는 인건비는 당해연도 인건비가 아니라 해당 교원의 퇴직 시까지 수십 년간 필요한 재원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인건비 충당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단과대별 기금규모로 감당할 수 없음을 설명하다. 또한, 단과대발전기금 목적이 학술,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인건비를 단과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의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기부금이 안정적인 재원이 아님을 설명하고, 매년 인건비를 기부금으로 지급하려면 그 이상 기부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부자의 기부 의사가 매년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교원 채용은 교원인사

	팀의 교원 인사정책에 대한 사항임을 설명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발전기금을 교원 확충에 활용하기 어렵고 건물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뇌유합과학연구원의 고가 기자재 구입을 위한 기금과 음악대학의 오페라 기금을 예로 들어 각 기금의 목적과 기금 운영 기관이 다양함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특정목적기금의 활용이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기부금 모금시 특정목적은 정하지 않은 기금이 있지 않은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많지 않다고 답변하다. - 학생처장이 기금 중 장학기금의 비율이 높는데 장학 기부금의 경우 소액일 경우 기부자가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부 규모가 큰 경우 대부분 원금을 보존하여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므로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을 위한 투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목적을 특정하는 사례가 많은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적립금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 대상 용도가 다른 기금들로 6천억 원의 기금이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단과대/연구소 등에서 정해진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출 의사결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다만, 예산팀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금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교비와 기금을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기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기부금 모금 시 목적을 정하지 않은 기부금이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사용하기 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부자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확인한 후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목적을 정하여 기부하는 경우가 많음을 부연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형예술대학 온라인 후원의 경우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큰 금액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은 조형예술대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목적기금이며, 교원 채용으로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통해 부담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	--

교원채용은 교원인사의 교원 정원 현황을 확인해야한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최근 첨단 분야 투자를 위하여 모금한 기금이 있었음에도 서버실 공사비로는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들어 기부 목적과 시급한 사용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금 사용이 어려움을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금 활용 관련 학교의 어려움이 이해가 가며,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금명세서에는 학생 모두가 투명하게 조회가 가능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적립금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 적립금명세서를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바, 2026년 6월경에는 학교 홈페이지 별도 화면에서 적립금명세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금 관련하여 모금, 특정목적, 원금보존 모두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해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기금이 이사 등으로 쌓이기만 하고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등록금 인상을 대체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며, 기금을 한 번에 다 사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절히 인출을 하고 다시 적립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 활용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수년간 원금보존기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거의 소진한 상황임을 1,2차 회의에서 보고하였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억 원이 한계 상황이 맞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0억 원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학교의 각종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물가인상에 따른 에너지비용 등으로 지출이 급증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기금을 인출하여 원금보존특정목적기금이 2020학년도말에 8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5학년도말 2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러한 추세라면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다. 투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기금을 인출한다는 것은 인출하는 원금만이 아니라 그 원금에서 발생할 미래 이자까지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인출하는 의사결정은 우리 대학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하며 세대간 공평배분의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거듭 설명한 바와 같이 학교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한계에 달한 상황이므로 등록금 인상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해 주길 요청

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교의 노력과 어려운 재정상황이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기금 규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을 기금 내에서 늘리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도 학교가 기금을 쌓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체감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또한 학생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기부상품을 개발하여 기부자에게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조성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처장단 임기가 1월 말인 바, 관련된 부분에 대해 다음 처장단에 전달하겠으며, 지금 발언은 지속적인 학교의 과제가 될 것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금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를 받은 것이고 원금보존을 위해 실질적으로 이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사용하기를 바라며, 학생들 역시 기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학교가 다양한 자원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발언하다. 현재의 인상안으로 학교 재정이 급격히 개선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보며 학교가 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상을 제시하니 신뢰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며, 학교의 고충은 이해를 했으니 요구안 관련 추가 발언하겠다고 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의 요구안 1~14번에 대해 발표하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첫째로 배리어프리 시설 개선, 둘째로 교육 환경 개선, 셋째로 전시/강의 공간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하다. 재건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 대단한 방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책걸상/테이블 교체, 콘센트 설치, 음식물쓰레기통 신규 설치 등의 수준이며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학교의 안내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다. 기금 또는 운영 예산에서 조예대를 위해 1억 원 이상 배정하여 사용처를 조예대 학생 측에서 제안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와 음대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예산 배정을 하고자 하여도 재원이 부족하므로 약속이 어렵고 답답함을 설명하고, 등록금 관련 학교 측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시설 개선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관리처장이 기본시설의 경우 학교가 담당하는 것이 맞으므로 이미 환기시설, 수도시설 교체와 건축 환경 중 화변기 교체, 외벽도색을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화장실 공사, 패션디자인 강의실 도장 공사, 파티션 제작 등도 진행

되는 중이고, 사물함/콘센트 등은 대학비로 가능한 부분이며, 대학비가 부족할 경우 조형예술대학 기금이 15억 원 정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용을 대학에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수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녹물을 목격하였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수도시설 전수 조사에서 녹물이 확인된 위치는 조치가 되었으나 녹물이 추가로 발견되는 위치를 알려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암실에서 녹물을 확인하였음을 알리며, 해충 피해, 난방 부족, 책걸상 노후화, 전시 공간 부족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등록금이 500만 원을 넘는 단대인데 이러한 문제의 개선 없이 다시 등록금이 오르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긴급히 조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예대의 상황에 대해 최근에 저장단이 많이 인지하게 되었다고 답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예대 등 요구안에 대해 배정되어 있는 운영비 내에서 시급성을 따져 조치할 문제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단대별 등록금이 상이한 상황에서 각 대학 등록금 수입을 본부에서 합쳐서 사용하는지, 해당 대학의 등록금은 해당 대학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자가 맞음을 답변하고, 1, 2차 회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록금 수입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순수입으로 보면 인건비조차 충당을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200만 원이 넘는데 등록금은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더라도 소요되는 교육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언하다. 따라서 전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대학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단대별 등록금은 과거 오래전 기준을 가지고 책정이 된 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예를 들어 첨단학과 기자재 구입 예산과 클린룸 신설 비용이 수억에서 십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를 설명하며 해당 학과 등록금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선행할 수 없지만 필수적인 투자이므로 총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안을 보면 의대를 제외하고 조예대, 음대, 인지대 등 등록금이 높은 단대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는 시설과 교원 수가 열악함을 뜻하며, 등록금이 높게 책정된 단대가 오히려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 상황은 작년 등심위를 통해 파악하게 되었으며, 음대의 열악한 상황도 알게 되었다고 발언하며, 이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 요구안 관련 실제 예산 투입을 등심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에서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처장단이나 본부가 학생 위원과 학생에게 신뢰는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처장단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6층 실기실의 부족한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어려우면 자연사박물관 이전이 가능한지, EWC에 자연사박물관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EWC에 자연사박물관 이전 계획은 없으며, 향후 마스터플랜 마련시 EWC에 체육학과가 이전을 하니 해당 공간을 조예대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자연사박물관 이전은 어려움을 밝히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장 면담시 자연사박물관이 특정 졸업생의 기부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는데 면담을 통해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하며, 자연사박물관이 조예대 건물에 있을 이유가 없고 조예대 공간이 매우 부족한데 입학 정원은 타 미대에 비해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많음을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의 공간 부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마스터플랜에 대해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자연사박물관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진 곳으로 의미가 있는 공간임에 쉽게 이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입학 정원 문제는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므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 마스터플랜이 검토 중이면 어느 시점 정도에 체감이 가능한지, 혹시 수십 년 후의 일은 아닐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수십 년 후는 아니겠지만 결국 기금 상황과 함께 진행되는 사안이며, 우선 계획을 짜야 하지만 현재는 EWC가 계획되어 있어 공간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다만 시설이나 학습공간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재건축 또는 공간 추가 확보는 현재로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주제이며 당장 재학생들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노력이라 아니라 예산 분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1억 원을 조예대 학생요구안에 사용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새로운 집행부에 조예대를 위한 특별예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조예대 학생들이 직접 예산안을 짜겠다는 발언도 하였으니 마스터플랜을 떠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억 원이 학생요구안이 맞는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어느 부분에 1억 원이 배정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인상안이 적용되어서 재원이 확보 되면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언급한 1억 원을 배정하고 학생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만의 예산인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1억 원 같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수치로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확답을 받고 싶었던 것이며, 어떤 항목을 지원받고 싶은지는 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억 원이 조예대 학생요구안에 대한 지원인지, 모든 단과대에 대해 1억 원씩 학생요구안을 위해 분배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만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 다른 단과대는 1억 원씩 지원되지 않느냐고 묻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경영대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비단 경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단과대도 비슷한 상황인데, 인상안이 가결되었을 때 단과대마다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이 자리에서 조예대에만 1억 원을 확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의 요구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학생요구안을 보면

와이파이나 냉난방 등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는 시설이 낡은 것이고 현재의 시설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리니 등록금 인상 시 이에 대해 2배 정도 예산 투입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인문대는 학관이 새로 생겼고 다른 단대의 경우 책걸상이 낡았다는 요구는 없었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경영대 요구안 중에 책걸상 교체가 있음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경영대는 회계사 준비반에 의자 지원이 있었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경영대 학부 강의실 책걸상도 비좁고 불편하며, 강의실 환기가 잘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시설로 따지자면 조예대 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도 문제가 많지만 이를 압축하여 요구안을 작성한 것이라 지적하며, 이런 방식이라면 다른 단과대도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지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배정을 해주어야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예대에 1억 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집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예대 말고도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단대별로 어느 정도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한 배정액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이 비단 조예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이고 조예대는 대표가 등심위에 참석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문제점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공감하여 결정을 해 줄 수 있겠지만 여기 오지 못한 다른 대표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단대들도 구체적인 얘기를 하며 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요구에 대해 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라 발언하다. 또한 인상안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아니고 동결 기반 예산안 내에 학생지원비나 시설관리비 등 예산이 있으며, 그러한 항목들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닐테니 시급성을 따져 조예대를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단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구가 있을 경우 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시설보수는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설비의 노후화 우선순위에 따르며, 조예대 시설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지만 계획에 따른 진행한 것임을 밝히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기금 증감명세서를 보면 특정목적의 다양한 기금들이 확인되는데, 어떤 기금들은 쌓기만 하고 지출을 전혀 안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기금들은 각 단대 등에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나중에 사용할 장기플랜을 가지고 기금을 모으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또한, 어떤 기금들은 이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잔액이 있는 이러한 기

금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의 개수가 매우 많고 조직개편 등의 변동이 생기면 운영주체가 일시적으로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여 지속적으로 기금을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체육과학부 기금 활용을 예로 들어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례를 설명하다. 두 번째 질의 관련하여 예를 들면 신축기숙사건립기금의 경우 학교의 선투자로 기숙사 신축이 완료된 후에도 약정한 기부금이 계속 입금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며, 각 기금을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기금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과거 기부자를 찾아서 설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이 지나간 발언 관련하여, 각 단대별 상황에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협의체에서 단대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하면 될 것이며, 인상안에 대해 학교 측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5천만 원~1억 원 수준에서, 학생들 일반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해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건 조예대가 급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요구사항을 전달하자마자 배정 확답이 가능한지, 다른 단대도 필요한 요구가 많은데 조예대의 시급성을 체감했다고 바로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바로 배정이 가능하다고 보다는 전제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조예대 등 낙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인상여부와 무관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인상안을 무기로 요구안을 들어주겠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발언하다. 3.9% 인상 시 수입증대는 40억 원인데 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 개선에 1억 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무조건 배정이 아니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미임을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최초 1억 원 배정을 발언하였음을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다시 발언을 진행한 것이며, 협의체이므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안건 자체가 요구안 심의이므로 학생 요구안을 듣고 쓰임새를 검토하는 것이라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런 해석은 옳지 않으며, 학생요구안에 대해 등

심위 논의가 필요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지, 인상을 위한 요구안 심의 자리
가 아니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 오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학부 등록금 3.9% 인상으로 발생하는 40
억 원의 재원 중 1억 원을 배정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음을 발언하며, 인상안
과 상관없이 학교 전체 예산에서 조예대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하다.

- 기획처장이 인상 기반의 배정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요구안은 매번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학교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반영이 어렵다는 학교의 답변에 따라 논의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어 등심위 논의사항으로 가져온 것이지, 등록금을 인상하여 인
상분으로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 달라고 발언하며, 학생요구
안은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재정하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는 과정
에서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당연히 동결안 기반이라고 발
언하다.

- 기획처장이 유념하겠으며, 과거 십수년 동안 비용절감형 예산안을
책정해 왔으므로 학생위원들은 예산 확보가 안 된다는 학교의 답변이 매번 동
일하다고 느끼겠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교 측의 답답함도 있음에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었다고 발언하다. 학교가 추가 재원 확보 시 등심위나 협의체
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선순위로 예산 배정하였음을 지난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
티브를 예로 들어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는 5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납부
하는 단대임에도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 개선을 요청한 것이지, 인상안
등 추가재원을 전제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 입장도 답답한 상황이며, 예산안은 예산팀과 각 부
처의 논의 끝에 편성이 되는데 학교 내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음을 설명하고, 조
예대 시설 낙후에 대한 부분은 재정 상황 때문에 조건이 유보적이긴 하였으나
예전부터 다음 처장단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음을 밝히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근본적으로 앞으로 고려해주길 원하
는 부분은 학교 회계와 예산 편성이 복잡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게 중요하며, 등록금은 해당 단대와 시설, 학
업에 가장 먼저 사용하고 부족분은 다른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고 발언하다. 학

생 등록금이 인건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인건 인지하였으나 학생들은 납부한 등록금의 사용처를 모르니 문제이며, 예산안을 짤 때 이를 고려하기를 바란다 고 발언하다. 학교의 재정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게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며,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작년 등심위 첫 번째 요구가 와이파이 개선이었고 즉시 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투입했다고 밝히며, 한 번도 요구안 관련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부 총학생회장에게 학생요구안 중 1순위는 등록금 동결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하며, 학교가 적립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하였는데 적립금은 학교를 잘 운영·발전시키고 학교의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모인 기부금이므로 기금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2차 등심위 안건에서 기금 용도 변경을 진행했듯이 변경이 어렵다는 학교위원의 발언이 공감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이와 연관된 내용으로 적립금 운영계획상 원금보존적립금에서 임의 적립금으로 이관된 금액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이관이 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원금보존기금은 인출 후 동일 목적의 임의기금으로 이관하여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표시된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임의 적립금 유형에서 건축기금에 등록금/비등록금 회계가 있고 비등록금 회계 당해연도 적립액에 감가상각비상당액이 확인이 되는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찾아보니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등록금 회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우리 학교는 등록금 회계가 아닌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건물의 내용년수에 따라 매년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건축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재건축이나 시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다. 다만 우리 학교는 등록금 회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적립할 재원이 부족하여 등록금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비등록금 회계상의 감가상각비만 적립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감가상각비 적립조차 60% 수준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분리된 내용을 설명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니 노후화를 대비하여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만 등록금 회계에서 비등록금 회계로의 이동, 기금으로의 적립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우리 학교의 경우 현재 이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휴회를 제안하여 5분간 휴회하다.

- 위원장이 학생요구안 심의를 지속할지, 다음 안건인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진행할지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심의 지속을 원하며, 단대별 등록금 책정기준의 공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학교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단대별 등록금 관련 동의한 바 없으며, 대부분의 등록금은 매우 오래전에 그 시기의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책정된 것이고 신설학과의 경우도 투자 재원 확보만 고려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책정될 수 없듯이 기존 등록금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답변하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학생, 교원, 물적 공간이라고 할 때,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차감한 순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재차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결론적으로 책정 근거 공개가 어려운 것이냐고 질의하며 아무리 오래된 책정안이라도 상세한 근거가 있지 않냐고 반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200만 원이 넘음을 상기시키며 학생 등록금 책정 근거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로 원가를 의미한다고 판단이 되고 이를 기업활동과 비교해서 보면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를 말하고 원가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순등록금이 제비용의 50%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원가 개념으로 설명이 불가능함을 밝히다. 또한 단대별로 등록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등록금을 책정할 당시 상황상 근거를 토대로 책정된 것이며, 단대별로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므로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단대별 차등 등록금은 학생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조예대의 경우 오래 전 재료비를 감안하고 책정이 되었겠지만 그 이후 재료비나 전시 지원 등이 일절 없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인문대와 조예대의 등록금이 동일해야 한다는 뜻인지 질의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예대가 아주 오래된

나무의자와 사물함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조형예술대학의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등 등록금은 이해가 가지만 왜 조예대가 500만 원이 넘고 자연대는 왜 400만 원이 넘는지 그러한 책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단대별 등록금 차등이 있음은 이해를 하였다고 이해하겠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료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왜 계속해서 등록금이 높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조예대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동일하게 발언하고 있음을 언급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애초에 등록금 차등이 조예대의 재료비에 대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한 차등이 다른 단대에 투자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입장에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대학비가 배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조예대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성, 중요성에서 타 단대보다 늦어졌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경영대도 복수전공, 부전공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연대도 실습 관련 예산이 추가 배정되는 등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우선 조형예술대학 학생이 아니라 조형예술대학 대표임을 인지하고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학교 내 단대별 차등이 아니라 타 대학의 유사 학과보다 우리 학교 등록금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왜 등록금이 비싼지, 책정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단대마다 등록금이 다르고 조예대 등록금이 높는데 정작 재료 지원이 없고 체감도 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후순위였다면 그 등록금은 타 단대를 위해 사용된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의 가장 주요한 수입은 등록금이 맞지만 전체 수입 규모의 50%가 되지 않으며 기금인출, 국고보조금, 기부금, 병원과 법인의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예산 편성 시 전체 수입예산으로 적절하게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배정을 한 후 추가로 필요한 곳에 특별예산으로 지원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분하여 안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그러한 방식은 이해가 되지만 조예대에는 어떠한 재로지원도 없고 지원이 수치로 체감되지 않으므로 책정근거가 궁금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이러한 지원 부족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문제이고 우리도 다른 대학처럼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한다고 하며, 예를 들어 그동안 목동병원에서 별도 건물조차 없었던 의과대학이 새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여 이를 단대별로 나누어 그 단대에만 투자비를 온전히 등록금으로 책정하지 않듯이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초기와 동일한 등록금이 지속되는게 맞는지 의문이며, 매년 상황이 다른데 책정안도 달라야 하는게 아닌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물가상승률은 2008년부터 30%가 올라가고 임금도 2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등록금은 2008학년도보다 낮은 상태임을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책정근거 등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학교측과 학생측이 다른 것 같으며, 책정이 된 시점이 예전이고 연관된 고정비/변동비가 커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단대 차원에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예전 등심위에서 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으며 행정실로 문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심위 회의록처럼 등심위를 통한 공개를 원하며, 조예대의 경우 환경/시설/재료 등의 사유로 등록금이 책정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스크랜튼대학과 호크마교양대학의 경우 둘 다 자유전공이고, 스크랜튼대학은 전임교원이 있음에도 호크마교양대학 등록금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궁금하다고 발언하다. 두 대학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수업도 비슷한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 책정근거가 궁금한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에 대해서는 당시의 등심위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책정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그런 식으로 등록금을 논의하고자 하면 단대별로 등록금을 인상, 인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처음 책정된 등록금을 매번 바꿀 수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그 당시 스크랜튼대학 관련하여 마련된 책정안이 그 당시와 사정이 달라져 높아져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예산안을 짤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영하여 조정이 되는데 책정안은 왜 그렇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과 신설 등 특정 단대에 어떠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대학 등록금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책정이 된 것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치기 힘들어 등록금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투입해야 하는 투자비용에 따라 등록금을 그때 그때 달리 책정한다면 4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상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을 예측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등록금 책정의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설명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알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신설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학생들이 누리는 복지 교육을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 보조나 기부금으로 신설학과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며, 단대별 등록금 책정안은 행정실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단대별 등록금 책정안은 행정실에 문의하라 답한 적 없고, 과거 등심위에서 대학비 중 실험실습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단대 행정실에서 답변하기로 했다는 뜻이라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등록금 책정 관련 원가를 생각해본다면, 인문계의 경우

강의실 외 별도의 공간이 필요가 없으나 음대나 조형대는 전시실, 실습실 등 많은 공간과 재료가 필요하여 예전부터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라 발언하고, 예산팀에서 지금 모든 단대에 대해 학생 1인당 정확한 교육원가 산출을 적용해 등록금을 책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등록금 수입 자체가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실습실, 재료, 가마 등 그러한 이유로 인한 차이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차등 등록금만큼 지원을 받고 있는지 고민이 된 것이며, 학교 측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측의 학생요구안 목적이 학생 측과 다른 것 같은데 학교 측은 인상안을 기반으로 요구안을 논의하는게 맞는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들이 요구안을 제시하였을 때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측도 3.9% 인상을 전제로 논의하는 입장이며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재원을 학생 요구안을 검토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인상안을 제기한 학교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겠다고 강조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측 입장은 동결안 기반의 요구안이며, 시설 투자는 기본적인 것이므로 등록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재정의 어려움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총학생회에서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그런 노력이 잘 전달되어 정부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위하여, 특히 사립대학 재정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다.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이 확대되고 우리 대학에 배정되어 학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노후화된 냉난방 등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우수 교원을 영입하여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연구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그중 우리 대학에 얼마를 지원할지 정해진 바 없고, 기금을 최대한 인출하는 한계 상황이며 특히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기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노후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학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점에 등록금이야말로 학교 재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수입임을 강조하고 등록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재원의 확보 또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이번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어 지속적으로 이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긴축 재정

으로 발생한 많은 어려움을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한 축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니 예산 질의는 더 이상 어렵다고 보여 구조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하며, 구조 관련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7월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해당 등심위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상정되는 안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현재 학교 측 위원 중 많은 인원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7월에 안건에 대해 양 측이 제시하고 확인한 후 논의를 바란다고 답하다. 협의체 관련 2~3월에 본인이 참석 예정이고 4월에는 결산 등심위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구조 관련한 부분은 7월 회의 개최 전 따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구조 등심위 안건은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으며, 7월 구조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은 안건 상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지금 위원들이 변경되니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위원들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보이며, 7월 등심위 진행 자체는 약속한 것이니 구체적인 부분은 그때 논의하면 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월 등심위 이전에 누가 위원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안건 상정 관련 사전 협의가 가능할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어떻게 위원 구성이 될지 모르므로 추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7월 개최는 확정이나 안건 상정 관련은 불확실한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개최 자체는 확정이니 구조 등심위 진행 전 논의하면 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관련 다시 한번 인수인계를 당부하고, 구조 요구안 1~5번에 대해 안건 상정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과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보고하다. - 예산팀장이 2차 등심위에서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용어나 표현의 부정확성이 있었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알리고 이어서 보고하다. - 예산팀장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의 고려요소로 등록금 인상을 법적 상한과 최근 3개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최근 3개년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3개년 전기·가스·수도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최근 3개년 최저임금, 2008학년도 학부 등록금 대비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학교 측 제시안 비교를 발표하다. - 위원장이 안건 관련 질의응답을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안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보고만 한 번에 진행하고 의결은 따로 진행한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부 등록금을 2008학년도와 비교하였는데 특정 연도를 설정한 근거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08학년도 이후 등록금 인상이 처음인 부분을 고려하였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2008학년도와의 차이로는 맞지만 학생위원 측 계산으로는 평균적으로 34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가장 높은 학과는 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인문사회과학대학 기준 2008학년도 금액과 2024학년도 대비 3.9% 인상한 2025학년도 등록금 차이가 23,000원이며 한 한기 기준 금액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2008학년도 이후로 인하가 된 적이 있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변하다.
--	--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교육부 면담 시 학교 측에는 동결을 요청하였는데 학교 측이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그동안 교육부 입장, 학생 입장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여 기금을 인출하며 긴축 재정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모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교육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은 교육부의 방향을 학교가 수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한도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총학생회장 등이 정부에 대학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이 수용되어 사립대학 고등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시간 전 뉴스에 따르면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면 교육부에서 8천억 원의 규제를 풀어주고 4백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교육부가 우리 대학에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을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올해 등록금 인하·동결한 대학에 대해 2024학년도까지 대학 지원 총액의 25%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30%까지 확대한다고 하여, 평균 2억 9천만 원을 인건비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등록금 동결로 제고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될지, 우리 학교의 인센티브 규모가 얼마일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정 예산 중 인건비를 5% 늘려서 사용해도 된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인상 시 등급을 알 수 있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2025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현시점에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시 교육부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수혜를 할 수 없는데 가계곤란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 I, II 유형과 이화복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미수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경우 많은 인상 대학들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상에 대해 거둬 언급하고 있지만 어렵게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가장학금Ⅱ유형 미수혜분에 대해 준비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모든 것이 아직 가정이지만 인상안을 전제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이는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소득분위와 일정 수준의 성적 이상일 경우 신청만 하면 되는데 학교 장학금의 경우 신청서 등 증명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학생처장이 기존에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이화복지 장학금을 합하여 소득분위마다 정해진 등록금 비율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국가장학금Ⅱ유형이 미수혜 될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교내장학금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는 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운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자료에서 궁금한 점은 3.9%의 책정 근거이며,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이며, 3.9% 인상하였을 때 이화복지 장학금 추가 투입분이라든지 그 밖의 계획이 있을 텐데 왜 3.9%의 근거가 공개되지 않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인상은 법적 상한이 있어 그 이상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2025학년도 법적상한인 5.49%가 책정 근거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그 이상이지만 학생들의 부담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며, 3.9% 인상으로 4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측에서 수치적으로 얼마가 부족하다는 내용 없이 40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된다는 게 어떤 근거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노후 환경 개선에는 수백억 원이 소요되므로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 이번 신공학관 냉난방 공사에 11억 원 이상, 교육관 B동 일부 냉난방공사에 9억 원을 투입하였고 또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무선네트워크 사업으로 40억 원 가량 투입하는 등 교비, 기금,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많은 투자를 진행한 사례를 설명하며, 이번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40억을 장학금과 냉난방 개선에 사용한다면 학내 구성원이 함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향후 에너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냉난방이 있을 것이며, 초반에 논의한 적립금 관련 특정목적으로 묶여있는 기금들이 많은데 냉난방은 모든 학생이 누리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금을 모아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기부금은 기부자들은 학교의 주요사업이나 의미있는 사업에 기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운영비와 같은 일상목적을 위한 기부는 모금이 잘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 또한 학내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필요 투자 규모는 335억 원 수준이며 이러한 금액을 기부받기는 쉽지 않다고 발언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학생위원의 질문은 이미 모금되어 있는 단과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기본시설은 학교 본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단과대학 기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과대학 개별 사업이 아닌 냉난방 개선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단과대학 기금은 해당 단과대학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이 존재하고, 목적에 환경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냉난방 공사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기금으로 집행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고, 단대 기금을 모아서 진행하기에는 기금도 부족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설명하다. 이번에 재원이 추가 확보되면 시급성과 수혜 규모를 고려하여 냉난방 개선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학교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예산안을 보면 예산 자체는 늘었는데 학교가 3.9%인상하여 어디에 추가 배정할 것인지 정해졌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수입 쪽 측면에서 등록금은 동결로 편성하고 외국인 7% 인상안만 12월 등심위에서 결정되었기에 반영한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의 기금 인출 또한 포함된 예산안이라고 설명하다. 등록금 수입이 40억 원 추가되면 장학금 배정 외 냉난방 설비를 위해 지출측면의 관리운영비 중 시설관리비와 기계구가 증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가 투자로 냉난방을 계속 언급하는데 학교 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교직원 인건비이므로 교직원 인건비로 활용하지 않

을 것이면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인건비는 학교가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노력할 것이며, 냉난방 시설은 에너지 비효율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는 면이 있고 교체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수혜되므로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옥길강좌기금이 어떠한 기금이고 기금 규모와 증액, 감액이 큰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김옥길 전 총장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이고 '김옥길 기념 강좌' 학술행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기금 규모상 증가액은 이자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교무처장)이 제인 구달과 같은 분들을 강좌에 모시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며, 다음 번에 누구를 모실지 추천위원회가 고민 중인 사안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기금이 이러한 방식과 같이 기부 목적에 따라 적립 중인 게 맞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기부하신 분들은 기부 목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금 사용보다는 운영이자를 활용하여 학술행사나 장학금 등에 활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안전에 대해 의결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많아 할 수 없으며 우선 3,239명의 서명을 총장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전달하지 못한 바, 이의 전달부터 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서명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위원장은 총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실제 학생 인상안 자체는 타 대학 대비 작기는 하지만 학교 측의 방향이나 본관 출입 통제에 대한 분노가 크며, 합의 없이 어떻게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계속 의문이라고 발언하며, 인상한다고 해도 그 후 계획에 대해 의문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산김정옥발전기금의 경우 증가분이 10억 원으로 계속 적립 중인 기금으로 보이는데 위원회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김정옥 이사장의 기부로 ECC내 인문학과 문화예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영산극장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ECC 닥터로빈 맞은 편에 연극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극장이며 얼마 전 제막 행사를 하였다고 설명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적립금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자를 최대한 쓰라고 권고하는데 이자로 적립을 계속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 회의 초반에 적립금 관련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재언급하며, 2024학년도에 250억 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고 기금의 이자수입(선급법인세 포함)은 해당 적립금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하는 교육부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은 적립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모든 재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적립금 사용에 동의할 것이고, 교육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적립금 목적 변경 절차라는 것이 있으므로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 초반에 답변했듯이 절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더불어 구성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방법이 있음에도 목적에 맞게만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발언은 옳지 않으며 방법을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동의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2030+발전기금 관련하여 52억 원이 증가 후 47억 원이 바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기부금을 유치 후 바로 사용

하였다는 뜻인지, 또한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총장 발전계획에 따라 모금한 것이며 여러 목적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금으로 현재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연도에 갑자기 증가했음을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기금 증가는 기부금 모금과 이자 배당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해연도 사용 기부금은 학교 행정에 사용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당해연도 기부받아 장학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기금으로 적립 후 이자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기금들의 경우 목적이 보이는데 2030+기금의 경우 감소액이 큰 부분이 의아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총장 발전계획에 따른 기금이므로 학내 투자비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교무처장)이 이화프론티어10-10사업이나 석좌교수기금 등 우수 교원을 유치할 때 특별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화프론티어 10-10 사업의 경우 학교의 국제 순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의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2030+는 총장이 취임하여 사업화하여 학교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미래전략기금은 큰 규모가 적립되고 인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해당 기금은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자연사박물관신축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형예술대학기금과 조형예술대학발전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유사한 기금들을 합치기를 희망하지만 시기나 기부 주체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 60주년 기금 등 기부자들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 기부를 진행하면서 기부 목적이나 기

	부자 구성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기금이 많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안과 기금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랜 시간 진행 되었고 추운 날씨에 본관 밖의 학생들이 걱정되니 회의 안건 의결 진행이 필요 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안이 철회되면 춤지 않을 것이며 인상안이 납득되지 않으므로 계속 질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기금 규모가 3억 4천만 원 수준인 자연사 박물관신축기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자연사박물관 신축을 위한 기금으로 보이며 신축에 사용 되려면 상당 금액이 추가적으로 적립되어야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조예대 1억 원 지원 관련하여 만약 동결이 되더라도 대학에 기금 15억 원이 있는데 이 기금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질의하 다. - 관리처장이 예산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조예대에서 사용목 적을 정해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쳐 사용 가능한 기금이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행정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 다. - 예산팀장이 각 기금마다 기금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설명하다. - 관리처장이 예전에는 조형대건축기금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기 금을 모아 건축 시 사용하려는 기금이었고, 조형대발전기금은 조형대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은 기금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기금운영위원회를 거치면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위원회의 인출 의사결정 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 된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적립된 기금이 많고 쓸 수 없는 예도 이해가 가지만 기금을 인출하면서도 어떻게 규모를 유지할 수 있
--	---

을지에 대한 고민은 학생들이 아닌 학교와 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단과대 기금운영위원회에 기금 사용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동의하며 각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 전입금 관련 2023학년도부터 이화학당 자회사 이수매니지먼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 다양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이수매니지먼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여성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뿐만 아니라 부속병원에서도 이수매니지먼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 목적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수익보다는 수지를 맞추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미있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등심위에도 준비하였듯이 각종 행사에 이수매니지먼트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에 따른 지원금도 사용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원금은 사업장 설비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인에서 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를 더 늘려서 수익사업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의하며, 학교도 법인에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해 요구하여 전입금을 늘려야 하지 않은지, 또한 법인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도 알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전입금 요청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차 회의때 제공한 자료와 같이 법인의 수익은 대부분 임대수익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하다. 다만 학교에 지원할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관련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수매니지먼트의 사업은 인지를 하였으나 유사하게 자회사 수익에 대해 법인이 계속 시도하고 그에 대한 수익 발생시 학교가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인 수익이 임대 뿐이라 수익 사업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법인에 문제 제기를 해 보았는

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설치학교 중 하나로써 법인에 전입금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다른 대학은 4%대의 전입금을 받고 있으나 우리 법인은 2%대의 전입금만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 수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며, 학교가 재정 다양화를 원한다면 법인에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999년 당시 법인전입금이 7%대였는데 현재는 2%대로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1999년과는 학교의 예산 집행 규모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며, 절대 금액은 증가하였다고 답변하다.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대학법인이 많지만, 우리 법인의 경우 법적 의무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법인의 전입규모가 부족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립대학에게 법인은 필수적이고 등록금 의존도와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의 부담율이 적은 점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못 받는 것, 연구 정부재원의 증액 편성,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동결 유인책, 적립금을 일부라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법인에도 최대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 이러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반영하여도 현재 예산안은 등록금 동결로는 불가능한 상태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들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지만 우리 대학의 상황은 충분히 공유하였고 우리 학교보다 훨씬 많은 전입금과 기부금을 받는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거나 추진 중인 배경은 대학들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 있으며, 아시아 QS순위만 보더라도 우리 대학을 포함한 국내 주요 대학들의 순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나서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 대학 역시 학교 평판과 이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기금인출, 기부금 모금, 국고사업 유치, 법인 및 부속병원 전입금 확보 등 모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학생위원들의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11시가 지난 시점이므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제안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질문 사항이 남아있으며, 의결만 진행할 경우 추가 개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음을 발언하다. 학생위원의 의견은 다른 대학과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논의가 길어진 이유는 첫 회의에서 안을 수정하였던 것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학교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인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알겠으나 여전히 3.9%라는 인상률은 의문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주 내 교육부 면담 등 등록금 동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수용할 수 없음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부의 정책이나 기금 용도 변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에도 유감임을 표하다. 3.9% 인상안을 제시한 학교에 대한 분노에 3239명의 서명이 3일안에 나온 것에 대한 무게를 느껴야 하며 그 어떤 학교도 이런 식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함을 지적하다. 다시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 측의 3.9% 인상안에 대해 이해를 못한 상황이고, 인상률에 대한 여러 협의를 거쳤을 때 2.5%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 인상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이미 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3.9%보다 낮게 가능한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책정안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등심위 학교 측 위원들의 논의와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과 상의하여 정해진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한 등심위 추가 개회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학교의 입장에 수긍한다고 해도 인상률을 논의할 기회도 없었으므로 공평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7일 전에 회의 일시를 통지해야 하며, 인상안 관련 논의를 하겠다면 안건을 어떻게 할지 고민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가 논의 요청은 인상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인상률은 최대한 낮추고 싶으며, 인상에 찬성하지 않지만 오늘 인상 여부에 대한

가결이 결정된다면 인상률은 3.9% 범위 안에서 다음 회의에서 협의과정을 거치기 원한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5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등록금 3.9% 인상에 대한 배경이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일부 공감이 된다고 한 바,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3.7%와 타 대학의 높은 인상률을 비추어보았을 때 우리 학교의 3.9% 인상안은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이며, 이러한 인상안을 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로 봐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다. 기부금, 전입금도 있지만 등록금이 학교의 핵심 기반이며 인상률에 대한 혜택을 오롯이 학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으면 인상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우리 학교의 인상률은 3.9%로 다른 대학처럼 법적 상한인 5.49%에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 부담을 고려하되 장학금과 냉난방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40억 원 수준의 소요 예산을 토대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고심 끝에 결정한 규모라고 설명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 학생회 활동이나 대동제 예산 지원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후속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학생요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매년 전달을 받을 때마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학내 다양한 구성원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첫 번째로 정정할 것은 표결이 진행된다면 학교의 뜻대로 가결이 될 것을 알고 있기에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학생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인상 시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임을 밝히고, 두 번째는 인상률 결정시 당연히 예산팀장이 적절히 예산을 집행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인상률에 대해 설명하는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임기를 문제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수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후속협의체에서 장학금과 냉난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내용연수 연한 및 시급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하며, 또한 활동 관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다. 오늘 의결로 마무리하지 않고 후속협의체, 결산 등심위, 구조 등심위 등 학생위원을 계속 만나고 논의하겠으며 그러한 자리에서의 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계속 회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등록금 책정 등 심위는 이번에 종료되는 것이기에 신중을 기하고 싶고 그렇기에 추가 개회가 필요하다고 하며, 다른 대학은 법정상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반해 우리 학교의 3.9% 인상안은 학생을 배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인상했을 경우의 예산안 자료가 없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3.9% 인상에 따른 확보예산은 40억 원이며, 이는 장학금과 냉난방에 투입될 것이고 어떻게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할지는 관리처와 협의하여 다음 협의체에서 안내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협의체도 개최되어야 하지만 등심위 추가 개회도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 예산의 사용을 논의하는 등심위 2월 개회에 대하여 다음 처장단과 확인해 보겠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등심위에서 인상률도 다시 논의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인상률은 오늘 의결을 진행하고 늘어나는 재정의 사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3.9% 인상에 바로 동의하기는 어려우며 2.9% 인상시 등록금 수입 증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역산으로 계산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3.9% 인상으로 인한 40억 원의 모든 사용처를 소상히 알고 싶으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2.9%를 역산해보면 29억 7천만 원 정도일 것이며, 국가 장학금 II유형 규모가 15~20억 원 정도라고 보면 차액이 예상된다고 발언하다. 이번 인상안에 따른 수입 40억 원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상당 부분 장학금에 투입될 것이고 그 외 냉난방 설비 등 학생이 체감하는 쪽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다. 2.9% 인상을 예시로 하면 장학금을 제외하면 냉난방 공사를 한 곳도 하기 힘들며, 교육관 B동 일부 층 공사예산이 9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하다.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4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
--	---

야 체감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아 책정한 인상안이며, 다음 등심위를 진행할 경우 위원 신규 위촉과 일정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지금까지 논의한 맥락이 연결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신입처장단과 날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 배정에 대해 약속을 할 것이라면 예산안이라도 제시하여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어려움만 토로하므로 3.9% 인상은 학생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으며, 학생들과 다 같이 인상률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차 등심위의 안건이 학생 요구안과 등록금 책정안임으로 요구안 관련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반영하여 다시 예산안을 편성해야 납득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9% 수입 증가에 학생 요구안을 반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원하는 건 눈에 띄는 개선이 아니라 인상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인상을 하겠다고 하니 인상률이라도 논의하고 싶은 것이고 1차 등심위에서 안건을 수정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 발언을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인상 자체는 많은 고민을 거쳐 협조하고자 하나 인상률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의 휴회 요청으로 10분간 휴회하다.

- 기획처장이 휴회 중 학교 측 위원들의 인상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9% 미만으로 하향 조정을 원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20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시설 개선 효과를 보고자 하며 국가장학금 II유형이 우리 학교의 경우는 15억 원~20억 원 정도의 규모이므로 시설 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가능한 인상률로 3.5%를 수정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5% 수정 제안인 것이고, 별도의 추가 협의 자

리는 없는지 확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3.5% 인상 시 추가 수입 규모를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35억 원 정도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본적으로 예산안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에 맞춰 인상안이 계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상률에 대해 일부 인하를 제시하였으니 그에 대해 다른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질의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마지막으로 3.1%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장학금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학생위원 측도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인상이 되더라도 2%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고 3.1%는 수용 가능한 최대 수준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휴회 후 재논의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 학교 측 위원들만 별도로 논의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 측이 의견을 모아 3.1%를 제안했듯이 학교 측도 의견을 모아야 하므로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짧은 시간의 논의로 결정되어 가는 책정 과정이 이해되지 않으며, 책정 근거가 없는 것 같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3차에 걸쳐 등심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고, 학생위원들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이고 학교는 인상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3.1%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위원 측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하였으니 마지막으로 검토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밖에서 농성중인 학생들이 여전히 동결을 외치고 있음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추운 날씨에도 학생들이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교육부 면담을 진행하고 3천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언급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상률은 조정하더라도 학교의 재정 투입은 원래 인상률 기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3.1% 인상할 경우 2008학년도 등록금보다도 낮음을 알리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08학년도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 때보다 높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2008학년도가 매우 오래되었는데도 현재 등록금이 더 낮은 것이 문제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등록금 책정이 기형적이었고 반값 등록금이 등장하게 된 맥락이었다는 의미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의 휴회 요청으로 10분간 휴회하다. - 기획처장이 재검토하여 3.1% 인상안을 수용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 등심위는 개최하지 않지만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팀장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 발제는 협의체에서 약속이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회의록에 발언들이 다 기재되고 있다고 하며, 의결 진행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이 협의체 배석하여 예산안에 대한 발제를 해줄 것을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 회의의 내용을 기반으로 준비하여 제안을 하고,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동결 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고 교육부가 지원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다.
--	--

- 학부 총학생회장이 3.1% 인상 후 추가 등심위 개회는 없고, 협의체에서 인상분에 대한 예산안을 논의하며, 학생 측에서도 협의체에 요구안에 대한 예산안을 준비하겠음을 확인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호크마교양대학의 호크마학부 편제 개편 관련 글로벌학부는 신설학부인지, 또한 글로벌학부와 국제학부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글로벌학부는 정원의 외국인 소속 학부이며, 2024년 4차 등심위에서 신설학부에 관해 보고한 바 있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자연과학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호크마교양대학 편제 조정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위원장이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대학원 학생회장 총 6인이 반대하여 2025학년도 학부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인공지능

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신설에 따른 등록금 책정(안)을 의결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학교 측이 1차 등심위 회의자료 송부 시 등록금 동결로 작성하였으나 회의 중간에 졸속적으로 인상으로 변경한 점, 2차 등심위에서 안건을 임의로 편집한 점, 회의자료를 이메일로 송부하지 않고 당일 서면으로만 제공한 점은 학교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향후 등심위는 비민주적, 비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앞으로는 회의 일정을 현재 3개 안 정도 제시에서 5개 안으로 늘리고 등심위 일정 간격을 보장하여 학생위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것과, 회의 최소 3일 전 자료 이메일 송부 관련 다음 처장단에 인수인계하기로 한 점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이번과 같이 학생요구안에 대한 심의도 보장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예산팀장의 협의체 배석과 7월 구조 등심위 개최에 대하여 확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향후 등심위 진행 시 올해와 같이 동결 제시 후 졸속적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정확한 인상근거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여전히 학생들은 인상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전달해드린 학생 서명을 반드시 전달해 주기를 바라며, 2주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를 위해 노력하여 왔고, 학교가 어려운 것 이상으로 학생들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발언하다. 학생위원 측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고 다음 처장단에게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한 점에 대해 감사하고 학생위원들의 발언을 다음 처장단에게 전달하겠으며, 추후 등심위는 올해와 같은 혼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나 기부금 유치,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산학전입금을 통한 재원 확충이 건전재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데, 본교의 경우 산학협력이 아직 초보적인 상태여서 원하는 수준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발언하다.

	■ 폐회 - 위원장이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확 인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5년 1월 17일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휘	이명휘	위 원	송수진	송수진
	위 원	김수민	김수민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반지민	반지민	위 원	이다연	이다연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서유리	서유리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석지우	석지우			
작 성 자	예산팀 김민중					